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일대 과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예고 없이 부닥칠수 있는 미래와의 전면 전쟁, 백전백승에 대비하여 국방과학부문에서 핵무기병기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 하시면서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드는 경우에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데 대하여 지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철을 눈앞에 두고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대성공 하고보니 오늘의 이 경사를 우리 장군님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쓰라린 아픔이 가슴을 저민다고 눈시울을 적시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력 강화의 길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끝없이 이어가며 장군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한생의 념원을 죽으나 사나 반드시 이룩해내고야말 굳은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시키고 귀환하는 국방과학전사들과 해군장병들을 항구에서 뜨겁게 맞이하시고 열렬히 축하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항구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천경만경으로 에워싸고 김정은동지 만세를 리쳐올

리는 시험발사참가자들의 기쁨과 격성의 눈물바다가 펼쳐졌다.

그 어떤 말과 글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출달을쳐 온 탄도탄개발과정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시험발사참가자들은 탄도탄이 날아오르는 그 짧은 한순간을 위해 무려 십여차례나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에 나오시여 의논도 해주시고 걸린 문제도 풀어주시며 최성적인 헌신과 눈물겨운 로고를 장그리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정으로 솟구치는 격성을 금치 못하였다.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고귀한 인생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당중앙이 구상하고 결심하는 전략적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완성함으로써 우리 당의 로제트 강국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